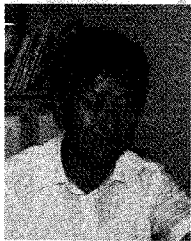


남
김
어
없는
는

사
라
는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 부국장

그는 지난 9월 4일 밤 11시5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집에서 별세했다. 향년 71세였다. 그의 시신은 곧바로 경북대 의과대학으로 옮겨졌다. 실험자료로 쓰이기 위해서였다. 빈소도 마련되지 않았다. 장례식도 없었다. 단지 사흘뒤 평소 고인이 다녔던 교회에서 고별예배를 지냈을 뿐이다.

그의 별세 소식은 가족과 병원 관계자만 알고 있었다. 최근 <숲속마을 작은학교>(10월호)라는 간디학교 소식지에 그의 별세 소식이 짧게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경북 문경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고려대학교를 다녔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친구들보다 4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큰 아들이 대안학교를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히자,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내놓았다. 아무 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탓일까.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의 이 소망은 이뤄졌다. 그의 시신은 6개월 뒤 간디학교 동산의 나무에 뿌려진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남아 있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는 것만은 막지 못했다. 이는 간디학교 초대 이사장을 지낸 양영모씨의 이야기다.

자연은 그 살고 죽음에서 남김없는 삶을 실현한다. 식물은 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그 생명으로 나눠주고 자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가 남긴 흔적이란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씨 뿐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소는 죽어선 뼈와 꼬리까지 가진 것을 몽땅 사람에게 나눠준다. 자연에게 자신의 흔적이란 없다. 다른 것들에게 생명을 온전히 주고받는 것이 그 생사의 전부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외인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인간 종족이 살아온 과정과 그 축적을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멋지게 포장하고 상찬한다. 개인도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향기롭게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

삶 자체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별반 관심이 없다. 동상을 남겨 기억과 존경을 강요하고, 부질없는 책자를 남겨 호화롭게 치장한다. 기념관을 지어 흙먼지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있는 자 위에 군림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묘비에 적을 관직을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좀더 크고 호사로운 유택을 얻기 위해 삶을 바친다. 그러나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은 남김의 부질없음을 웅변한다. 공원묘지마다 즐비한, 한때 화려했을 묘지가 채 두세 대도 지나지 않아 파묘 상태로 폐허가 되어있는 모습은 어디 서나 발견된다.

가을이 깊어간다. 노란 국화꽃만이 저물어가는 계절을 지키고 있다. 들판엔 횡한 바람만 가득하다. 논밭엔 타작을 끝낸 벼가리와 콩대 따위만이 군데군데 무덤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너른 들 귀퉁이에 남아 있는 김장 배추와 무만 걷어가면, 우리의 들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연의 청빈과 홀연함을 실현하리라.

이때쯤 당신은 그 빈 들에서 보길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비어있음의 아름다움에 소스라쳐 놀랄 것이라고 나는 장담

한다. 그 들에는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깨 등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린 것들로 가득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가도, 품 안 가득 먹거리를 길러내어 저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들판은 그가 길러낸 것들을 남김없이,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줬다. 이제 그에겐 지금 아무 것도 없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이 주는 감동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당신이 도시를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웃 집 마당에 꺾충하게 서 있는 감나무를 돌아보시라. 어느 새 무성하던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렸다. 주렁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을 키운 것이 바로 그 감잎이었다. 무수했던 그 열매들도 이젠 까치밥으로 남긴 것 두어 개만 아득한 꼭데기에 남아있을 뿐이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건 질푸른 하늘이다. 빈 공간이다. 그 비어있음도 빈 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비어있음, 곧 가난을 권면했던가 보다. 예수는 가난을 하늘나라에 이르는 열쇠라고 했다. 불가의 선사들은 비어있음을 가득 참으로 보았으며, 청빈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자 깨달음의 본질로 보았다. 가톨릭의 미사나 불가의 재나 세속의 제사 상에 촛불이 오르는 이치도 이와 맞닿아 있으리라. 남김이 없는 삶이지만,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 빛나는 역설을 촛불은 실현하고 있으니까.

양영모 선생처럼. PPFK